

# '제1회 섬진강영화제' 개막작 선정

개막작 '산수갑산' · '육사오' ... 개막식 사회 영화배우 이문식 · 김혜나

오는 21일부터 순창군 향토회관 야외 무대와 현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펼쳐지는 제1회 섬진강영화제가 개막작과 사회자 등 주요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섬진강조직위는 제1회 섬진강영화제 개막작으로 순창에서 100% 촬영한 백학기 감독의 '산수갑산'과 우리군과 북한군의 우정, 사랑을 담은 박규태 감독의 '육사오' 2편을 선정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산수갑산은 순창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배우 권민중(권소리 역), 백지운(백미너 역)의 유쾌한 갈등과 서정적 서사가 유려하게 돋보이는 감성을 담았다.

영화 육사오는 남한 군인 천우(고경표)가 1등 당첨 로또를 습득하지만 실수로 바탕에 날려 북한 병사 용호(이이경)가 그 1등 당첨 로또 종이를 주우면서 당첨금 57억을 수령하기 위해 남·북한 병사가 함께 협동하며 그려지는 우정과 사랑이 담긴 영화다. 조직위는 순창 속 청정 자연이 품고 있는 섬진강의 내면과 영화가 가지고 있는 깊은 주제의 내면을 담은 두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할 사유라고 밝혔다.

개막식 사회는 영화 공공의 적, 황산벌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하는 순창 출신의 배우 이문식 씨와 한국독립영화



제1회 섬진강영화제 개막작 산수갑산.

계의 여배우 캐스팅 1순위인 배우 김혜나 씨가 맡아 아름다운 섬진강영화제의 서막을 올린다.

영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먼저 시네마 토크에서는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이문식 씨와 모더레이터 배우 김현균 씨와 함께 영화 황산벌을 관람 후 영화 속 이야기,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군민과 함께 보는 군민위드시네마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영화 미니언즈2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상영되고, 가족힐링시네마에서는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 컴백쇼, short시네마순창에서는 지역에서 제작된 우수 단편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향토회관 야외무대 부대 공연으로는 드라마 수사반장을 재연한 청춘극장 '수사반장'을 통해 원로 배우인 김형자, 서권순, 송경철, 정종준 씨를 만나 볼 수 있으며, 어텀브리즈인 순창으로 만나게 되는 지역예술인들의 공연도 군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백학기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은 "개막작과 주요 프로그램이 공개된 만큼,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다양한 영화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아영면 무형유산 가치 공유

四季무형문화유산나들이-무형유산관광×국악버스킹 개최

남원시 아영면 일대에서는 지난 15일, 2022지역무형유산보호지원사업 일환인 '남원四季무형문화유산나들이-무형유산관광×국악버스킹'이 성황리에 개최되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진 무형문화재와 지정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남원지역 무형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남원 일대에서 계절별 무형유산관광답사와 버스킹공연이 콜라보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다채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아영면에서는 '고분답사' 등이 포함된 '추계(秋季)' 탐방과 함께 소리꾼 박순천의 흥부가, 전북무형문화



재 제1회 익산목발노래 국악버스킹이 콜라보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국가지정사적 제 542호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과 월산리고분, 아영흥부마을(흥부네 집) 등을 둘러보고,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인식하고, 흥부네 집 마당에서 관객과 하나 되는 소리꾼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

시, 한복문화주간 맞아 문화공연·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남원시는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이번 주말 관한투원과 남원예촌 일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한복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행사로, 올해는 남원시를 포함한 국내·외 17개 국가 27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를 주제로 한복문화주간에 참여하는 남원시는 특히 한복문화지역거점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일회성 행사에서 나아가 남원의 고유 문화관광자원과 한복을 접목한 새로운 한복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우선 한복과 만난 문화공연이 10월 21일~23일에 진행, 이번 문화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립국악단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룬 한복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 줄 'K-댄스 한복을 입다'가 22일~23일 이틀간 진행된다.

한복체험관 화인당에서는 한복문화주간과 연계한 체험행사를 10월 22일~23일에 진행, 한복 입고 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은 사람은 '화인당'으로 예약(사전 예약 1일 최대 10명/문의 063-632-8100)하면 되고, 한복을 입으면 관한투원을 무료입장할 수 있는 보너스 혜택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일시	장소
[공연] 화인당	한복 소품 및 액세서리 체험	10월 19(일) 13:00~22:00	화인당
[공연] 남원예촌	남원예촌 전통 공연(한복) 공연 및 문화공연	10. 21(화) - 11. 23(목)	남원예촌 / 관한투원
[공연] 꽃을 입다	다양한 지역 특색 반영한 소품 전시 및 공연	10. 22(수) - 10. 23(목)	남원예촌
[공연] K-댄스	한복을 입고 춤추는 K-댄스 공연	10. 22(수) 19:00-20:00 10. 23(목) 19:00-20:00	남원예촌
[공연] 한복을 입다	한복을 입고 춤추는 K-댄스 공연	10. 22(수) 19:00-20:00 10. 23(목) 19:00-20:00	남원예촌
[공연] 화인당	한복 소품 전시 및 공연	10. 22(수) - 10. 23(목)	남원예촌

도 있다. 특히, 한복문화주간을 주관하는 예루살렘 마당에서는 Everywhere전시 시리즈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의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시한 설치미술 작가 임지빈의 헤어발품을 만날 수 있으며, 남원 '한복문화주간'의 자세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남원예촌·화인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디자인에보 레지던시,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디자인에보(대표 김현정·박세진)가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는 디자인에보가 소양고택(대표 이문희)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21~23일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소양고택에서 열린다. 이번 고택 아트페어는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를 위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진 예술가

를 발굴 및 소개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소형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소개 및 판매하는 전라북도 최초의 고택 공간 테마형 아트페어다.

고택 아트페어에는 '2022 에보 미디어 레지던시'의 입주작가인 김아라, 정석우, 이산, 윤원, 한강을 포함해 총 38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LEODAV, 박준석, 다솔, 씬머그린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170여 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고택 아트페어와 함께 22~23일 양일

간 고택 재즈페스타(음악감독 재즈피아니스트 김성수)가 진행된다. 유승호, 황대규, 탁경주 등 국내 유명 재즈 뮤지션의 공연과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디자인에보의 김현정·박세진 대표는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는 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식과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전북의 미술 및 재즈 음악 시장의 자생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전북문화예술관광의 중심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는 온라인 예매 사이트(이벤트에서 '고택' 검색)와 현장에서 입장권(10,000원, 두베카페 무료 음료 1잔 포함 가격)을 구매할 수 있다. 문의는 디자인에보 070-4245-719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무형유산' 특별 강연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오는 25일 전북평야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무형유산' 특별 강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청각과 촉각을 연계한 체험활동과 강연을 함께 구성, 무형유산을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별 강연의 주제는 순팔으로 전하는 한국의 방짜유기, '씻물에서 악기로, 수천 번의 두드림'이며,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종덕 보유자는 전통 방짜유기 작업 기술과 유기 공예품으로 재탄생하는 세밀한 과정을 담은 작업 이야기 등 무형유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체험활동 시간에는 방짜유기와 그릇을 직접 만져보며 모양, 크기, 마감처리와 질감 등의 차이를 느껴보고, 전통방식의 '가질' 작업을 직접 체험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돕기 위해 전북평야대학교 선생님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적극행정 실현에 더욱 매진하고 무형유산의 아름다움을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책무인 문화 강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2022 NOW 청년 PROJECT

**배우경**

송은채

**베바**

오프스트릿

**조이풀**

EPL+

**이상욱밴드**

악바리

**10월 23일**

장소: 태조로심터

주최주관

후원